

퀀트시그널 #2

외국인이 자신감을 되찾은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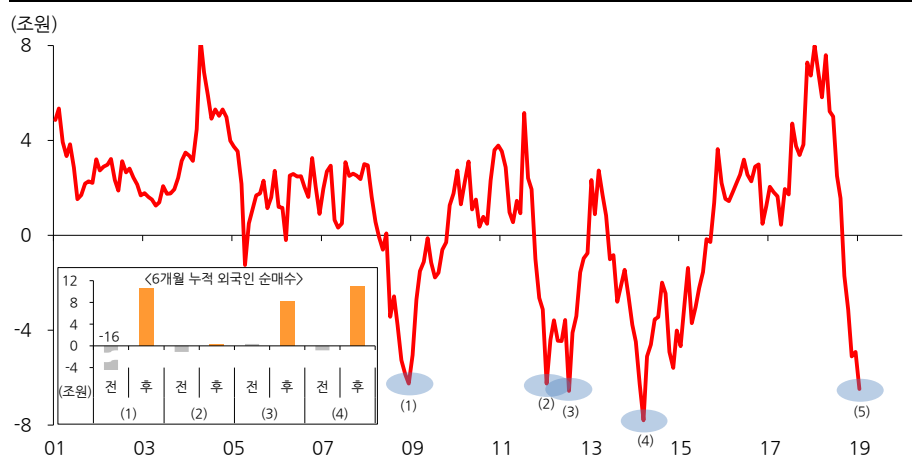
Analyst 안현국 hg.ahn@hanwha.com 3772-7646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영업일 연속 순매수했다. 올해 들어서는 총 1.0조원 유입됐다. 2010년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는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엔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면서 긴 상승 채널을 형성했다. 직전 고점은 2017년 7월이다. 외국인은 고점 이후 9.0조원 순매도했다. 과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채널 하단 근방까지 내려왔다. 꿈틀거리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반가운 이유다.

외국인이 자신감을 되찾고 돌아오는 걸까. 시기와 강도를 고려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월초에는 월말보다 빠르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몰려 있다. 한국 수출, 미국 제조업, 고용 등이 예다. 지표에 대한 평가가 매달로 이어진다면 먼저 사고 많이 사는 것을 투자 심리의 개선의 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외국인 매매는 월초가 월말보다 약했다. 월초 1주일간 순매수와 월말 1주일간 순매수 금액 차는 지난해 -4.9조원에 달했다. 월초에 강한 매매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 지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0년 이후 월말 대비 월초 순매수 금액 추이가 네 번에 걸쳐 급락했는데, 변곡점이 유사한 수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네 번 중 금융위기도 포함된다.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지만 비교적 일관됐던 과거 저점 근방까지 내려왔다. (1)~(4) 당시 저점 이후 외국인 매매는 매도보다 매수로 이어졌던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림1] 외국인 월초 순매수 추이(월말 대비, 12개월 합산)



자료: QuantWis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